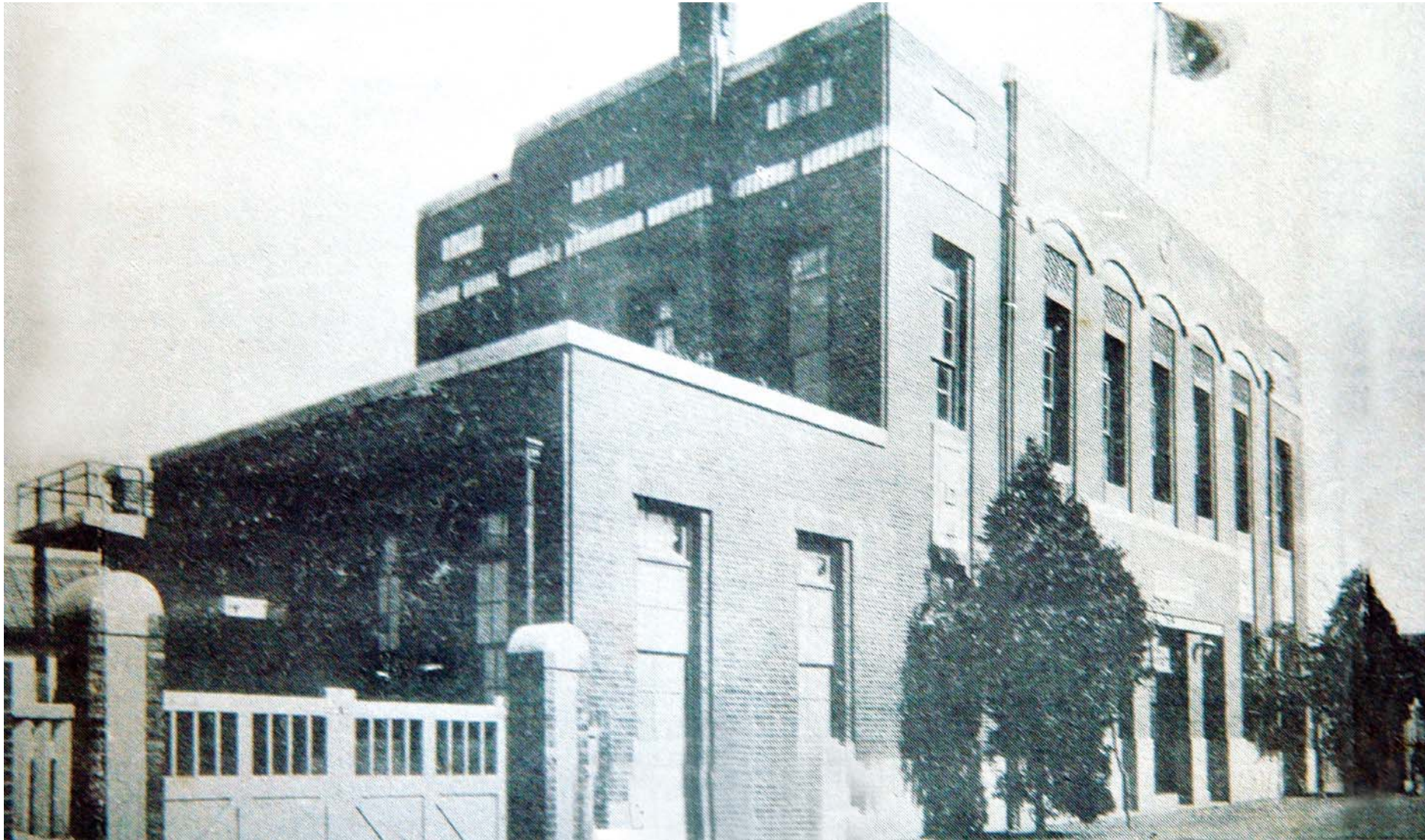


# 통치 위한 관공서 외곽에 속속 들어서며 광주 확장



광주광역시 시의 시발은 1912년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성내면, 그 주변의 기례방면, 공수방면, 부동방면 등 4개 면이 통합돼 탄생한 연합면이었다. 1914년 명칭이 광주면으로 바뀌었고, 1931년 광주읍으로, 21년만인 1935년 광주부로 급성장했다. 지금의 '구시청사거리'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광주부청사는 1969년까지 시청사로 사용됐다.



1935년 기존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면서 광주의 나머지 부분은 광산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송정리 등은 이 광산군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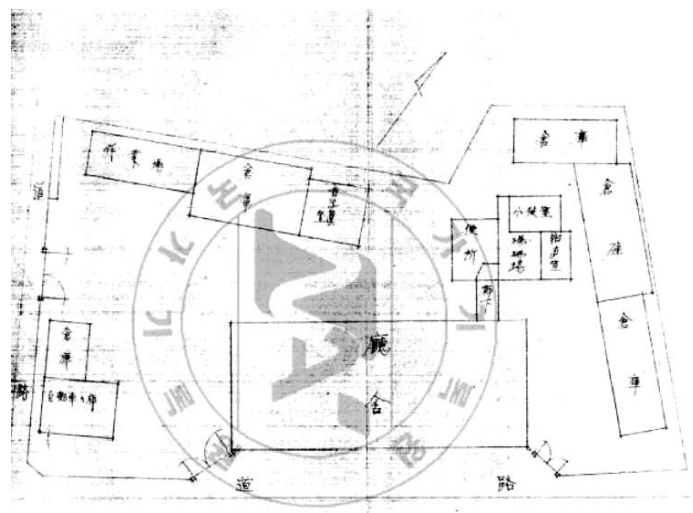
1910년 10월 복성정, 지금의 금남로 3가 14번지에 들어선 광주지방법원. 해방 이후 1967년 지금의 동구 지산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금남로에 있었다.

##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 15. 음성 벗어나 기관들 잇따라 건립



光州府廳舍及附屬建物配置 總圖

광주부청사 배치도

앞서 언급했지만 광주가 도청 소재지, 호남의 중심도시로 정해지면서 여러 기관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된다. 대한제국시대까지 광주읍성 내로 제한됐던 관공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좁은 읍성을 벗어나 외곽에 자리를 틀었다. 일제는 이 관공서를 이어가면서 수도, 하수, 전화, 전기 등 기반시설들을 설치했다. 따라서 이는 근대화 해택이 도시 전반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었다.

광주를 경유하는 국도 경복선(경성~목포선) 역시 항일의병 진압에 나선 일본 군대의 진군을 위해 서둘러 놓였으며, 근대시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들어섰다. 대한제국을 집어삼킨 일제는 지역의 관공서를 장악하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속속 만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결국 지역의 근대화를 가속시켰고, 일제강점기 지역민들은 차별에 반발하며 근대시설의 혜택을 촉구했다. 이러한 마찰과 투쟁의 성과가 그대로 광주라는 도시에 투영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광주는 면·읍·부, 다시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자주 청사를 이전 신축 또는 개축했다. 광주면은 1912년 4월 읍성을 중심으로 한 성내면, 그 주변의 기례방면, 공수방면, 부동방면 등 4개 면이 합쳐져 탄생했다. 광주군청은 당시 지금의 무등극장 자리에 있었던 객사(의국사신이나 중앙 관료의 숙소) '광산관'에 있었고 연합면(광주면)사무소는 1913년 2월 그 부속건물에 자리했다. 그러다가 1914년 2월 이 광산관과 부속건물이 헐리면서 그 인근 합석초가집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4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합면은 광주면으로 바뀌었고 1916년 3월 광주의 부호 정락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정(동구 남동) 92번지 450평 부지의 기와집 2동을 광주면에 기부, 리모델링을 거쳐 최초로 사무소다운 면 청사를 갖게 됐다.

1917년 10월 일본인 250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지정면(자체 사업 및 방재 발행이 가능한 면)이 된 광주면은 1925년에서야 서광산정(동구 남동) 28번지에 청사 건물을 신축했다. 부동교에서 지금의 구시청사거리로 가는 길목이다. 1922년 일본인 면장이 청사 건립 방침을 수립한 뒤 4년간 모은 1만7740원과 그 해 예산 8637원 등 모두 2만6377원을 투입했다. 기와 2층인 본관(55평)과 주변 부속건물 5개동(56평)으로 구성됐다. 일제는 청사 준공식에 맞춰 그동안의 광주 역사를 담은 '광주의 금석'이라는 책자

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면 청사가 위치한 곳은 4개의 교차로 중 한 쪽으로 무등을 바라보는 지점이었다"고 적고 있다.

광산관이 헐리자 광주군청은 1917년 당시 남문동, 지금의 옛 전남도청 뒷편에 부지 2095평, 건평 70평 정도의 옛 관참도 부속 건물로 옮겼다가 1922년 10월 그 주변인 동광산정(동구 광산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 후 1931년 9월3일 대화정(동구 대의동)에 있던 광주군청에 담뱃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2층 110평을 모두 태우고 진화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화재를 계기로 임곡·하남·비아·동곡·대촌면 등의 후원을 받은 송정면이 조만

갠다는 방침은 해방 이후 수십년간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5년 10월1일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면서, 광주군에서 분리되자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던 나머지 면은 광산군이 됐다. 기존 광주군 청사를 그대로 사용했던 광산군은 1938년까지 청사 내에 어업조합연합회, 광주세무서 등이 입주해 있었으며 같은 해 4월 광주세무서가 서석정(동구 서석동)에 부지 600여평에 청사를 준공하면서 독립했다. 1940년까지도 광산군청은 광주부 내에 있었으며, 송정을 유지들은 광산군청을 송정읍으로 이전하고 나주 분동·분양·삼도면을 광산군으로 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08년 6월 사법제도의 개혁, 같은 해 8월 재판소 조직 개혁에 의해 광주에도 지방재판소가 설치됐다. 관할은 전라남북도였으며, 관할부 부속건물을 써오다가 1910년 10월 복성정(금남로 3가) 14번지에 청사 신축공사가 나서 1911년 7월 준공했다. 청사 및 관사 부지 3873평, 건평 청사 270평 및 관사 180평 등의 규모로, 산하 지청으로는 순천·장흥·목포·제주·전주·남원·군산 7곳이, 출장소는 전라남북도에 24곳이 있었다. 1917년 당시 광주지역 내 변호사는 일본인 1명, 한국인 3명 등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방 이후 금남로 3가에 위치했던 광주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으로, 당시 이전 부지를 둘러싸고 광주호법회(광주고등법원 설치기성회)와 광주시가 극심한 마찰을 겪었다. 당시 광주호법회는 1953년 애초 광주교도소의 농장이 있었던 동구 지산동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으로 광주 지방법원을 이전하려 했지만, 광주시는 금남로 3가의 법원 및 검찰청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결정하고 업무지구로 결정된 서구 농성동 등으로 법원이 이설해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면→읍→부→시로 급성장 광주부청사·법원·검찰청 등 기관 주변에 전기·수도 설치 근대화 시설 도시 전반 확대

간 부로 승격되는 광주를 대신해 광주군청을 송정면으로 옮겨가 겠다며 이전운동을 추진했다. 예나 지금이나 관공서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치열했던 것이다. 1935년 10월 '부'로 승격한 광주는 1936년 기존 읍사무소가 협소하며 조선총독부에 부의 청사 및 공회당 신축을 위해 국비 예산 5만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체 예산 10만2443원을 들여 기와 지붕 2층 건물의 부청사를 짓고 그 옆에 8만8372원으로 공회당을 짓겠다는 복안이었다. 이 새로운 부청사 및 공회당의 부지는 경양방죽 1차 매립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구시청사거리 자리에 있던 광주부 청사는 해방 이후 1969년 계림동에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사용됐다. 계림동 광주부청사는 경양방죽 2차 매립지였다는 점에서, 경양방죽 매립으로 생겨난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

-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